

가

NPO

"분단의 아픔을 같이 받아 온 재일동포들은 평화통일의 걸음을 함께 할 권리가 있다"

한국(조선) 국적에 집착해 온 재일동포

현재 민족의 약 8 퍼센트, 600 만명에 이른다고 하는 해외 교포중에서 재일의 '올드거마'만이 한국(조선) 국적에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때문일까. 큰 이유는 일본의 지나치게 가혹한 식민지 지배와 부당한 전쟁 후 처리, 전쟁후의 대재일정책 때문이다. 전쟁 후의 일본은 재일동포에 대한 적대성은 일관적이었다.

이러한 적대성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한 평화조약 체결(52 년) 이전이나 이후에서부터 한일 조약 체결(65 년) 후, 80 년대의 지문날인거부-반외국인등록법 투쟁의 과정에서 반세기 이상에 걸쳐 계속되었다. 재일동포는 오랜 거주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향토애"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한"을 축적시켜 온 것이다.

두 번째는 굴욕적인 일본의 귀화 제도 때문이다. 야마토 정권이 대륙이나 한반도로부터 율령제도를 거두어들이는 중에 사용되기 시작한 「흥화내귀」 또는 「왕화」라는 말은 야마토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이적」이고, 「정벌」의 대상이었다.

귀화 신청을 하면 본인은 물론 친척이나 친구에 이르기까지 사상·신조·가입단체 등을 끈질기게 조사하고, 일본풍을 강요한다는 것은 전쟁 후의 귀화제도가 「흥화내귀」 또는 「왕화」의 사상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재일동포는 귀화가 자기 자신의 "민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냥 지나칠수가 없었던 것이다. 즉, 일본의 민족 차별이 재일동포가 일본에 대한 귀속 의식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해 재일동포들을 조국으로 더욱 접근 시켰던 셈이다.

세 번째로 전쟁 후 재일동포와 조국의 관계성에서도 국적에 집착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45 년 일본의 패전으로 길고 엄한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 망설임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재일동포는 귀국과 새롭게 재건되어야 할 조국 건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라는 프라이드와 정체성을 회복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국으로

귀국을 영원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게다가 일본과의 국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귀국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일본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게 된 재일동포는 일본의 엄한 민족 차별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과정속에서 59 년에 시작된 공화국 귀국 운동은 당시의 많은 재일동포들에게 희망의 탈출구였다. 일본 각지에서 귀국에 대비한 민족 교육열이 타올랐고, 민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 학년 아이까지도 공화국으로 귀국을 열망했다. 그러나 점차 공화국에서의 참담한 생활모습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년후에는 낙담과 함께 귀국열은 줄어들어 갔다.

한편, 65 년에 노호 중에서 성립한 한일 조약 체결에 의해 처음으로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 허용된 재일동포는 수십년만에 고향을 방문해 조국의 빈곤을 피부로 느꼈고, 그곳이 향수의 땅이긴 하지만 돌아갈 곳은 아닌 곳으로 이해했다. 그 무렵부터 재일동포는 귀국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본 영주를 의식적으로 선택해 갔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은 북이든 남이든 조국이 빈곤한 상태에서 일본에 귀화하는 것은 궁핍한 가족을 버리고, 자신만이 좋은 생활을 하는 이기주의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국의 민중 또는 고향의 가족과 「고락을 함께 하는 길」을 선택했다. 일본에서 민족 차별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일해 적은 돈이라도 부지런히 조국이나 고향에 보냈다. 그것이 재일 동포에 부과된 사명이라고 생각 했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귀화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느껴진 것이다.

분단의 아픔을 같이 받아 온 재일동포

조국과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의 생을 선택한 재일동포가 조국의 분단으로 어려워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의 패전 후에 동포의 권리 옹호, 민족성 회복, 귀국 준비를 위해서 결성된 동포단체는 48 년의 남한의 단독 선거 강행, 6·25 동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대립과 동포끼리 죽고 죽이는 과정을 보면서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유일한 조국이라 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맹’과 대한민국의 국시를 준수한다고 하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의 양진영에 수렴되어 갔던 것이다.

이것은 재일동포 사회에 있어서의 분단의 성립이었다. 동서냉전은 한반도를 찢었고, 또 같은 지역에 사는 재일동포 끼리 정치적, 조직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민단은 한국의 요청에, 조선총련은 공화국의 요청에 응해 왔다. 그 요청에는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것도 많았다.

단적으로 말하면 조선총련에 주어진 역할은 전 재일동포를 공화국의 깃발 아래에 결집시키는 것이었고, 한국민단은 조선총련에 결집하는 동포를 무너뜨려 한국국적으로

"분단의 아픔을 같이 받아 온 재일동포들은
평화통일의 걸음을 함께 할 권리가 있다"

한국(조선) 국적에 집착해 온 재일동포

현재 민족의 약 8 퍼센트, 600 만명에 이른다고 하는 해외 교포중에서 재일의 ‘올드거마’만이 한국(조선) 국적에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때문일까. 큰 이유는 일본의 지나치게 가혹한 식민지 지배와 부당한 전쟁 후 처리, 전쟁후의 대재일정책 때문이다. 전쟁 후의 일본은 재일동포에 대한 적대성은 일관적이었다.

이러한 적대성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한 평화조약 체결(52 년) 이전이나 이후에서부터 한일 조약 체결(65 년) 후, 80 년대의 지문날인거부-반외국인등록법 투쟁의 과정에서 반세기 이상에 걸쳐 계속되었다. 재일동포는 오랜 거주와 일본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향토애”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 “한”을 축적시켜 온 것이다.

두 번째는 굴욕적인 일본의 귀화 제도때문이다. 야마토 정권이 대륙이나 한반도로부터 율령제도를 거두어들인 중에 사용되기 시작한 「흥화내귀」또는 「왕화」라는 말은 야마토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이적」

이고, 「정벌」의 대상이었다.

귀화 신청을 하면 본인은 물론 친척이나 친구에 이르기까지 사상·신조·가입단체 등을 끈질기게 조사하고, 일본풍을 강요한다는 것은 전쟁 후의 귀화제도가 「흠화내귀」 또는 「왕화」의 사상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재일동포는 귀화가 자기 자신의 “민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냥 지나칠수가 없었던 것이다. 즉, 일본의 민족 차별이 재일동포가 일본에 대한 귀속 의식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해 재일동포들을 조국으로 더욱 접근 시켰던 셈이다. 세 번째로 전쟁 후 재일동포와 조국의 관계성에서도 국적에 집착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45년 일본의 패전으로 길고 엄한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 망설임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재일동포는 귀국과 새롭게 재건되어야 할 조국 건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라는 프라이드와 정체성을 회복했다. 그러나 현실은 조국으로 귀국을 영원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되고 게다가 일본과의 국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귀국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일본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게 된 재일동포는 일본의 엄한 민족 차별에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과정속에서 59년에 시작된 공화국 귀국 운동은 당시의 많은 재일동포들에게 희망의 탈출구였다. 일본 각지에서 귀국에 대비한 민족 교육열이 타올랐고, 민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까지도 공화국으로 귀국을 열망했다. 그러나 점차 공화국에서의 참담한 생활모습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년후에는 낙담과 함께 귀국열은 줄어들어 갔다.

한편, 65년에 노후 중에서 성립한 한일 조약 체결에 의해 처음으로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이 허용된 재일동포는 수십년만에 고향을 방문해 조국의 빈곤을 피부로 느꼈고, 그곳이 향수의 땅이긴 하지만 돌아갈 곳은 아닌 곳으로 이해했다.

그 무렵부터 재일동포는 귀국이 현실적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본 영주를 의식적으로 선택해 갔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은 북이든 남이든 조국이 빈곤한 상태에서 일본에 귀화하는 것은 궁핍한 가족을 버리고, 자신만이 좋은 생활을 하는 이기주의라고 느끼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국의 민중 또는 고향의 가족과 「고락을 함께 하는 길」을 선택했다. 일본에서 민족 차별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일해 적은 돈이라도 부지런히 조국이나 고향에 보냈다. 그것이 재일 동포에 부과된 사명이라고 생각 했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귀화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느껴진 것이다.

분단의 아픔을 같이 받아 온 재일동포

조국과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의 생을 선택한 재일동포가 조국의 분단으로 어려워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의 패전 후에 동포의 권리 옹호, 민족성 회복, 귀국 준비를 위해서 결성된 동포단체는 48년의 남한의 단독 선거 강행, 6·25 동란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데올로기 대립과 동포끼리 죽고 죽이는 과정을 보면서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유일한 조국이라 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맹’과 대한민국의 국시를 준수한다고 하는 ‘재일본대한민국거류민단’의 양진영에 수렴되어 갔던 것이다.

이것은 재일동포 사회에 있어서의 분단의 성립이었다. 동서냉전은 한반도를 찢었고, 또 같은 지역에 사는 재일동포 끼리 정치적, 조직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민단은 한국의 요청에, 조선총련은 공화국의 요청에 응해

왔다. 그 요청에는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것도 많았다. 단적으로 말하면 조선총련에 주어진 역할은 전 재일동포를 공화국의 깃발 아래에 결집시키는 것이었고, 한국민단은 조선총련에 결집하는 동포를 무너뜨려 한국국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59 년의 조선총련의 공화국 귀국 운동에 즈음해서는 한국민단이 북송 반대 운동을 펼쳤고, 65 년의 한일조약 체결과 그에 따르는 「한국적」에 한정하는 「협정 영주권」 취득 운동에 즈음해서는 조선총련이 반대 운동을 펼쳤다. 그 배경에 각각의 분단 조국의 지령이 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분단 조국은 재일동포사회에 대리전쟁을 강요한 것이고, 재일사회 내부의 분단과 대립을 보다 한층 격화시켜 재일 동포 사회를 파괴했던 것이다. 분단되고 대립하는 조국을 가지는 재일동포의 고뇌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민족 차별과 빈곤속에서 허덕이는 일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2 세·3 세 세대는 일본의 민족 배외주의와 동화정책에 의해 민족적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것에 곤란을 겪었고, 거기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 분단되고 대립하는 조국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조선총련이 아무리 찬미 하려해도 실체는 전제군주 정치에 지나지 않은 공화국과 한국민단이 추종하려하더라도 문자 그대로의 군사 독재정권이 계속된 한국이었고, 서로 비방하는 모습은 결코 '자랑하는 조국'이 될 수 없었다.

그결과 일본, 한국, 공화국 즉 세개의 조국을 가진 재일동포는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명확한 귀속 의식을 가질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중에서 많은 재일동포 청년이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찾고자 한국에 유학했지만, 조국은 그러한 청년 학생에 대해 「반쪽발이」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군사 독재 정권은 조국에 희망을 가져 온 재일동포학생을 「정치범」으로서 꾸며, 체포해서 고문을 하고 또 사형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분단에 의해 초래된 민족의 아픔은 분단 조국에 사는 동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재일동포도 같이 받아 왔던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NPO 법인 삼천리철도의 발족

2000 년 6 월 15 일의 남북 공동 선언은 남북 조국의 동포만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진 교포에 있어서도 가슴 뛰게 하는 희소식이었다. 특히, 분단의 아픔을 가장 절실하게 받아 온 재일 동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선언이 있던 직후, 한국민단의 김재숙 중앙본부 단장은 남북 정상외 역사적 회담을 받아 조선총련에 제의서를 냈다. 이 제의서에서 김재숙단장은 “오늘, 나는 남북 정상회담을 재일 동포 사회의 화합과 단결의 획기적인 계기로 해서, 이번의 공동 선언에 따라 조국의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21 세기의 동포 사회의 통일 실현을 향해 조선총련과 아무런 조건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교류를 해 가는 것을 제의 한다”라고 말했다.

또 8 월 24 일에는 조선총련이 한국민단에 대해 4 항목의 제안을 제의했다.

그 내용은 (1)각계 각층의 재일동포가 모여 공동 이벤트를 개최하자. (2)상호 부조 활동을 같이 전개하자. (3)민족성 계승의 활동의 논의를 같이 하자. (4)총연과 민단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실제 양조직 중앙에서의 교류는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양조직의 중앙은 조국의 문제에 관해서는 각각의 조국으로부터의 지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자립적인 조직임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지방에서는 다양한 공동 이벤트가 개최되어 갔다. 그것은 남북공동선언이 가져온 통일 기운의 공간이 통일을 열망하는 재일동포에 용기를 주었고, 이에 각 지방의 조직들이 움직인 것이었다. 분단의 아픔을 같이 받아 온 재일동포는 평화 통일의 걸음도 같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NPO 법인 삼천리철도도 그러한 통일기운의 공간안에서 결성되었다. 그러나 한국민단과 조선총연 양조직에 의거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삼천리철도는 남북 조국의 양쪽을 조국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포이면서 분단 조국의 한쪽만을 조국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쪽을 ‘적’으로 간주해 온 어리석은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고 강하게 염원했기 때문이었다.

두번째, 남북 통일운동에 동포로서의 주체성을 가진 참여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38 도선의 비무장지대에 서서 남북 조국의 양쪽과 등거리에 있어야 하고, 또 조국의 지령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체적 의지에 근거한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세번째, 구체적인 운동으로 6·25 동란때에 파괴된 남북을 중단했던 철도의 재연결을 위한 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북통일에는 향후도 우여곡절이 예상되지만, 철도연결에 의해 초래되어야 할 남북 교류 공간의 비약적 확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 정착과 장래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삼천리철도가 그동안 주로 해왔던 운동들을 소개하며 줄고를 끝내고자 한다.◆

<발족이후 삼천리 철도 활동>

- 2000.9.1 NPO 법인 ‘삼천리철도’ 발족 집회
- 2001.3.1 철도건설모금을 개시
- 2001.6.17 남북 공동 선언 1주년 축제
- 2002.3.20~24 제 1 차 모금 전달 사업 및 JSA 투어
- 2002.3.21 한국 통일부를 방문, 엔화 680 만엔 전달
- 2002.6.16 남북 공동 선언 2주년 축제
- 2002.12.4~6 제 2 차 모금 전달 사업
- 2002.12.5 북한 내각을 방문, 엔화 680 만엔을 전달
- 2003.3.1 제 2 차 모금 전달 사업보고 집회
- 2003.6.7 남북 공동 선언 3주년 축제
- 2004.5.7 북한 용천열차 사고 의연금 50 만엔 전달
- 2004.6.12 남북 공동 선언 4주년 축제
- 2004.6.14~17 ‘6.15 남북공동선언 4주년기념 우리민족대회’참가